

사순 제 3 주일

기도서 257년 (B해)

- 제1독서: 출애 20, 1-17
- 제2독서: 1고린 1, 22-25
- 복음: 요한 2, 13-25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요한 2, 19).

▶ 감론



어리석은 사람들

권 이 복 신부

사람들은, -비록 교우일지라도- 하느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한 열성과 희생이 하느님께 바쳐진다면 천국은 곧 그의 것이리라. 그런데 그 '돈버는 것, 이는 참 쉬운 일이다. 좋은 몫에서, 그리고 사지 않으면 안될 물건을 팔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겠는가? 끝내주는 배경이나 재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스라엘 전국을 통틀어 장사 몫이 가장 좋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마당의 제물 파는 곳이었다. 일년에 한 번은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그 상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니 돈벌이가 오죽이나 좋았겠는가? 바로 이런 몫 좋은 곳에서 멍멍거리며, 장사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보통 배경과 재력을 가지고 거들떠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 장사를 망쳐놔오니 그 목숨 성할리가 있었겠는가? 결국 우리 주님은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을 닮은 어리석은 무리들이 또 있었으니 유향점, 유요한, 이누갈다 일가였다. 어리석은 양반들! 예수가 누구때 쓸데없이 천주학쟁이가 되어 그 좋은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 다 버리고 철저히 망한단 말인가! 그러니 그 동배 사람들이 '너희는 절대 천주교 믿지 말라'고 대대로 유인하며 죽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패가망신할 짓을 왜 하는가... 참으로 바보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도 그 바보같은 사람들 중 하나이니 바로 그런 분을 주인님이라 부르고 그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으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님과 그를 믿는 자들의 삶은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게 보이지만,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할 것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찬탄의 대상이다. 이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고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다(1고린 1, 23-25).

바로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만약 교회에서마저도 이 어리석음이 소외되고 무시된다면 이는 더 이상 하느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는 교회의 탈을 쓴 친목단체나 이권단체일 뿐이다. '예수 없는 십자가, 하느님 없는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눈이 감긴다. (홍보국장)



젓밥 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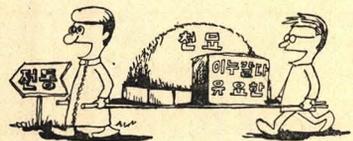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정치협상에 의견들이 구구하다. 여야가 소선거구제에 촛점을 맞추는가 싶더니만, 다시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에 그 방향을 바꿀듯이 비쳐지기도 한다. 물론 야당들간에도 마찰가지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야권통합에도 두 김씨가 동시에 물러나느냐, 또는 두 김씨가 직접 일선에 나서는 집단지도체제를 갖추느냐에도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무엇 때문에 그 의견이 다르냐가 문제가 된다. 정말로 국민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우선 제 앞에 큰 감을 놓겠다는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 정당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당리당략 내지는 사리사욕에 치중해 있는 듯이 보여져서 씁쓸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유신정권 때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상업성 유행어에 귀가 익숙해져 있었다. 소위 나누어 먹기 식의 정치판도는 우물쭈물 지난 정권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뜻있는 국민들은 소선거구를 간절히 열망해 왔다. 그리고 그 열망을 지난 대통령선거시에 야당이 큰 목소리로 말해, 국민들은 야당을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소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나서는 점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야당의 양 김씨 문제도 그렇다. 소위 실세라는 두 김씨가 뒷전에 물러앉아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꼴은 영락없이 "열 불에는 맘이 없고 젓밥에만 맘이 있는" 짜라지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서야 어찌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젓밥만을 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시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정통성과 도덕성의 끈질긴 시비를 무력과 폭력으로 무마해왔던 제5공화국의 종식과 함께 제6공화국의 출범은 작은 희망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특히 '물량 성장과 안보를 앞세워 자율과 인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으로 억압하거나 밀실의 고문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라는 취임 말씀은 민주화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의 이 약속이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 알 수가 없는 한 사건이 이곳 전주에서 일어나 우리를 불안케 하기에 이 글을 씁니다.

----- 사 건 경 위 -----

1988년 2월 24일 오후 4시 전국적으로 예상되었던 '부정조작 대통령 취임 반대'를 위한 집회가 이곳 전주에서는 전주시 전동천주교회에서 재야 학생 등 4개 단체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집회를 마친 100여명의 군중이 평화적 시위를 시도했으나 몇배나 많은 경찰력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중 학생 10여명과 이수현 신부(전동 주임), 김진화 신부(전동 보좌) 등이 남문 옆에 이르렀을 때 학생 4~5명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을 경비하던 전경들은 두 신부님만을 대열에서 따로 격리시키고 심한 욕설과 함께 무차별 구타하여 머리 등에 12바늘을 꿰뚫어 하는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더우기 피범벅이 된 이신부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는 커녕 도로에 내팽개쳐진 그들 사이로 차량을 통과시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신부 19명이 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전경들에 의해서 문전에서 거절당했으며 다음날 전동성당 대표들의 면담도 역시 일방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 이 사건을 겪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 설령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벌을 줄 일이니 백주 대로에서 그것도 정당한 성직자들을 그토록 구타한 저의는 무엇인가?
 - 피해자인 오천 신자들의 대표나 19분의 동료 신부들마저 만날 수 없는 경찰서장은 어떤 사람이라야 만날 수 있는가?
 - 이런 만행 앞에서 우리는 이 정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등등 술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니다.
- 이에 우리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과 10만 평신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노태우 신임 대통령께서는 진정 민주화여로의 굳은 의지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만행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비단 우리들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공권력이 국민을 위한 공권력이 아니라 집권자의 집권수단으로써의 공권력이었음을 수년간 체험해왔던 온 국민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새 정부의 응답은 앞으로 현 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이 민주화를 표방한 폭력정권이라 판단되어질 경우 우리는 우리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되겠기 때문입니다. 진정 공권력과 교회와의 오랜 갈등과 싸움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리오니 성실한 회답 부탁드립니다.

1988. 2. 28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하느님은 당신의 착한 자식들이 하는 일 다 잘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니(III요한 1,2)

대입종합반 모집 개강 : 3월 2일(수)

원장 이도근(시문)

대입 전문 전주 한샘 학원

74-7424 코아호텔 후문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의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의 황수경
(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아)

☎ 전주 84-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교 구 소 식

사순절 행사 안내

- * 사순절 특별강론 : 일시-3월11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전주 중앙천주교회
강사-이흥기(요한) 신부, 광주 가톨릭대학 교수
주제-신학 성서에 나타난 "성찬례"
- * 사순절 매일 새벽미사 : 장소-숲정이 성지. 시간-새벽 6시(주일은 제외)
- * 사순절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치명자산

- ※ 이후동 천주교 성전신축 기공식 : 일시-3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인후아파트 1단지 정문옆(안뜰), 주례-박정일 주교
- 1. 성 빈첸시오 아·빠울로회 교구 이사회 변경 : 12일(토) 오후 3시
장소-신태인 천주교회
- 2. 섬모기사회 젊은이 모임 발족 : 3월 5일(매월 첫토요일) 오후 6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 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7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 4. 행복한 가정운동 교육안내 : 8일 오전 10시-자연 가족계획원리 슬라이드 교육
9일 오전 10시-비디오교육, 1일·15일 오전 10시30분-본당지도자 재교육
장소-가톨릭센터 평협회관 2층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 5. 전주지구 소년구리아 탄생 "지혜로운 동정녀" : 매달 3째주 오후 1시30분, 연지동성당에서, 대상-수류·원평·김계·신태인·고창·시기동·연지동
- 6. 전주지역 재속3회 1일피정 : 10일(목) 9시~17시, 장소-전동성당
1인당 1,500원, 준비물-미사도구 및 지침서
- 7. 테클라 모임 : 성소자 모임-오후 2시(성바오로서원 2층)

♣ 잡 관

동그랗고 하얀, 그게 뭐지?

성당에 처음 와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우리 교회의 중심이요 핵심교리 이지만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이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까지도 그 참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영성체하는 사람도 상당수 이리라.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어물어물할 수 없게 됐다.

내년 10월 세계 성체대회는 세계 온 나라 교우들이 우리나라에 함께 모여 성체 안의 참 뜻을 나누게 될 터인데 성체에 담긴 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해 올 것이고, 자기 자신 역시 즐기치게 소리쳐대는 신문, 라디오, TV와 함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그랗고 하얀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난리인가? 라는 슬한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든 답을 줘야 하겠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내년 세계 성체대회는 신자에게든, 비신자에게든 관계없이 성체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 대회는 그저 외부적 행사로 끝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신 의아들을 제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목숨, 더우기 당신의 삶과 피까지도 우리의 음식으로 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5년전 교황님과 함께 한 200주년 기념대회가 이 땅에 천주교회를 양적으로 급성장시킨 기회였다면 이번 성체대회는 양적으로 팽창될 우리 교회를 내적으로 깊이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동그랗고 하얀' 성체의 참 의미를 알고 생활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리라.

고농종묘농약사

각종 농약·씨앗·비료·농자재 염가판매
구 성모병원(상가)
전화 82-8468
야간 3-9225
박 동 왕(요한)

*건축물 설계의 합리적추구 건축설계·건축허가 공사감리 대행업의 전문 신원건축사무소

1급건축사
김철수(요한금주)
전주시 진북동 294-10
☎ (주)3-7780·72-8500
(야)3-1449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김안과 의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전 은 주
(베로니카)
전주 코야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전화 85-3020

요심이(761) 김병오

전두환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한탕주의경제사건과 인권침해사건이 많았던 정권이지!

어떤 사건인데-
장영자사건 그리고 명성그룹사건. 영동개발진흥사건. 범양사건.

민정당대표부동산투기사건
대지종합기술공사토지매입사건
새마을본부장직인권개입사건
연해재단의 정치자금축적혐의

박종철 고문치사은폐사건
부천 성교문사건. 이한열사건
김근태고문사건. 명노열사건
건국대농성자1275명구속사건

이젠 그만

□ 1분 명상

인생에 있어서
무상의 행복은
우리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명동피부과의원

□ 새로 나온 책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권해드리는 책

성체 조배

34가지의 성체조배 방법
성바오로 팔수도회 엮음
4·6판/288면/2,000원
*성바오로 출판사
취급처-전주 성바오로서원
전화 3-3398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진익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환영합니다 : 교황대사님, 오늘 공식미사 집전

- 1. 사순절 특별강론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반
2. 십자가의길 기도 : 매 금요일 어머니미사후
매 일요일 저녁미사후. 많은 참여바랍니다
3. 모임 : 사목회-오늘 공식미사후
자모회-오늘 오후 3시
삼지회-9일(수) 오후 7시
반장회합-11일(금) 어머니미사후
포미씨름-다음주일 오후 2시
4. 주일학교 교리개강 : 오늘 오후 2시반
유치부·국민학생
5. 고등학생 교리개강 : 오늘 학생미사후
5. 성모유치원 입학식 : 9일(수) 오전 10시
7. 전례위원 모임 : 10일 오후 8시
미사해설자·성가대장
8. 재속형제회 피정 : 10일 오전9시. 전동성당, 1,500원
9. 9일부터 가정방문이 시작됨
□ 지난주 봉헌금 : 1,229,040원 교무금 : 1,179,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축하식-오늘 공식미사후
2. 사목회 : 공식미사후
3. 금오회 : 공식미사후
4. 차주는 친교주간 : 반장님 회의-차주 공식미사후
5. 안나회 임원개편 : 회장-오영순, 부회장-이정숙,
총무-김옥관, 서기-이정자(테레사)
6. 부활 판공성사 일정 : 초·중·고학생-12일·19일, 일
반인-21일(1반~30반), 22일(31반~60반), 23일(61
반~66반)
※ 성사시간 : 오후 2시~5시30분, 7시~10시
7. 금주복사 : 박희정·양재순 차주 : 장유진·최계호
8. 금주봉헌 : 서범석 부부 차주 : 김봉욱 부부
9. 미사안내 : 인자하신 모친pr 차주 : 권인의 의탁pr
□ 지난주 봉헌금 : 695,430원 교무금 : 845,5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1. 오늘의 모임
사목회-저녁미사후 8시(사목회의실)
요셉회-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2. 진북유치원 개원식 : 7일 오전 11시
3. 까리따스 자모회 월례회 : 8일 오후 2시
4. 안나회 : 9일 오전 11시
5. 금주 가정방문 : 19반·20반, 8일~10일
6. 봄 판공 할고지 : 1세대에 1장씩 가져가서서 풀어 보
세요(판공때 제출하세요)
7. 봄 판공 특별교리 : 고백성사에 대해서
13일·20일-주일미사 강론시간
8. 금주 본당청소 : 어머니 성가대-12일, 성가연습후
□ 지난주 봉헌금 : 711,620원 교무금 : 753,5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 ☆ 미사시간 안내 : 월·목·금-오전 10시
화·수-오후 7시30분, 토-오후 4시·7시30분
일-10시30분·오후 7시30분
1. 수녀님 가정방문 : 8일 오후-동산2구, 9일 오전-동
산3구, 10일 오전-팔복1, 10일 오후-팔복2,
11일 오전-팔복3
2. 생활교리 : 공식미사후 교육관(강수녀님 지도)

- 3. 구역모임 : 8일-동산2(최연조)
9일 나눔찬치-동산3구, 11일-팔복3구(한상갑)
4. 모임 : 애령회-오늘 공식미사후
동명회·요셉회-12일 오후 6시
5. 청소 : 자비의 모후
6. 금주전례 : 해설-한기철, 독서-①최연조 ②김영원
차주전례 : 해설-손택규, 독서-①이의준 ②신문자-
□ 지난주 봉헌금 : 235,240원 수요헌금 : 26,070원
교무금 : 291,0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소병을

- 1. 모임 : 사목회-공식미사후(소성당)
안나회 창립 : 회장-전세레나, 부회장-성엘
리사벳, 모임일시-매월 첫째주일(60세 이상)
까리따스회-8일 오후 2시
2. 예비자교리 : 매주 일요일 12시, 지하 강당
3. 축! 소년·소녀 pr 창단
순결하신 모후 : 단장-김경심, 부단장-김에만
상아보탑 : 단장-김미경, 부단장-오동훈
4. 사순절 신자 특별교리 : 8일·15일·22일-저녁미사후
5. 구역미사 : 전당리-1주·3주 목요일
미산리-2주·4주 목요일
6. 성체조배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11시
7. 금주 본당청소 : 창조회의 어머니pr-12일 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 291,420원 교무금 : 466,0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 판소리 감상 : 명창-이용배
1. 요안나회·성모회·푸른솔 : 공식미사후
2. 8일 : 자모회-오전 10시, 사목회-오후 8시
3. 신앙강좌 : 매 목요일 오후 8시
4. 구역미사 : 8일 오전 10시-진북2동 6구
9일 오후 8시-진북2동 3구
10일 오전 10시-진북2동 7구
5. 초등부 고백성사 : 오후 4시30분
5. 사목회 피정 : 아치에스 행사(다음주)
7. 금주 본당청소 : 화-자비의 모후, 토-상아보탑
8. 미사안내 : 상아보탑
□ 지난주 봉헌금 : 487,060원 교무금 : 529,5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 1. 사목회 임원 및 성전건축위원회 모임 : 6일 오후 5시
2. 성전 기공식 : 12일 오후 3시, 신축부지-안골
3. 판공성사 성서읽기 : 요한복음 전부
4. 봄 판공성사 : 1일부터 미사 전후에
성사표 갖고 성사보제요
5. 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5. 성전건축 금에 관심을 가집니다
미신입학신분 신입과 남부바랍니다
7. 금주모임 : 켈마회-10일 어머니미사후
8. 가정을 위한 생미사와 선영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하
고 기도합니다
8. 미사시간 엄수하기 바랍니다
10. 3월 성당청소 : 매주 월요일-하늘의문
□ 지난주 봉헌금 : 563,100원